


한국- 그 양심의 불모 지대

한국 고유의 동물, 단군 신화의 반달곰은 수세기를 거쳐 곰 쓸개를 원하는 인간들의 몹쓸 욕망 때문에 거의 멸종 하였다. 현재 야생에 복구 된 19마리가 전부, 이 반면에 무려 1600마리의 반달곰 들이 꼭 막힌 철창에 비참하게 갇혀있다.

이 곰들들은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비위생적으로 쓸개 즙을 짜이며 그리고 언젠가 밀도살 되는 운명과 함께 거의 미쳐가고 있다.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주도 아래 사육 곰 정책을 하루 빨리 폐지하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.

A photograph of a bear, likely a Korean brown bear, looking out from a rusty metal cage. The bear's face is partially visible through the chain-link fence. The cage is made of thick metal bars and has a wooden door with a metal latch. The background is a plain, light-colored wall.

정부의 사육 곰 정책,
전격 폐지

www.반달곰프로젝트.org